

#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

- 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

The Process of Communality Formation Among  
the Families of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 A Case Study of a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류 경 희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 수 김 순 옥

Dept. of Child and Family, Changwon National Univ.

*Full-Time Lecturer* : Ryu, Kyung Hee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Kim, Soon Ok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방법

III.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mmunality Formation among the Families of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Ethnographic,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t field are used as method. The families of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form their communality through investment and harmony, making relationship, and struggles and overcoming the struggles. Each family is willing to put in their money and time for an unfamiliar group to organize and manage a community. They head for the same direction accepting the diversity of expectation and thought based on the diversity of environment of each family. They have interactions upon the basis of equality among the families. Sharing their unique culture such as communal place(teojeon), common issues, same generation, unique terms, specific modes of

speaking informally or nicknaming, they accept the diversities and head for the sameness to have a harmony. In the result of forming relationship, these families transfer successfully from the field of I and my family to that of group. They escape from a sense of priority that concerns their own family first and then others. They come to be able to consider the group first. Besides, they come to assimilate themselves to the group by identification with the group. They come to form their identity and sense of membership of the group recognizing power of group they belong in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y. The process of forming community among the families of cooperative has inescapable struggles. Each family becomes a real host of the cooperativ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truggles and experiences a growth of individual and group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the ways of overcoming the struggles. In the end, the families cooperates and reestablish their community.

**주제어(Key Words):** 공동육아협동조합(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공동체성(communality), 투자와 화합(investment and harmony), 관계형성(making relationship), 갈등과 극복(struggles and overcoming the struggles)

## I. 문제의 제기

대부분의 핵가족에서는 출산의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부터 하게 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맞벌이 가구 비중이 '94년 30.7%, '97년 37.2%, '98년에는 IMF 한파로 실직자가 많아서 33.1%, '99년에는 33.3%로(통계청, 1999)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족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녀양육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전업주부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통로가 없으며, 어머니와 아이와의 독점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또 한 두 명밖에 안 낳는 아이들을 개별가정에서 키울 때 아동의 자발적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병호, 1996). 따라서 맞벌이 가족이나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이나 육아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가족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요구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족과 함께 해결하려는 정책적 실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사는 가족끼리 혹은 공통된 문제를 가진 가족들이 연대해서 고정관념적인 기존의 가족 개념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실험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가족에 대한 대안형태들 중에

서도 가족간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공동체 가족이 가족 안에서의 기본적 연대감, 공동체적 사랑, 이웃간의 유대를 회복하며 개별 핵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하나의 대안적 가족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성과 스스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동관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유대와 구체적인 삶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 혈연·비혈연의 핵가족들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공동체라고 정의해 볼 때(류경희, 1999), 공동체 가족이란 핵가족의 고립, 자녀양육, 자녀교육,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자율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동의 유대와 평등한 인간·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며,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과 현장을 만들어 가는 가족들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류경희·김순옥, 1999).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새로운 도시생활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도시공동체나 공동주거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핵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족간에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적인 삶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가족들은 보편적으로 첫째, 의·식·주와 같은 가족생활 및 가족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둘째, 평등한 인간관계,

평등한 가족간의 관계를 수립하려 하며, 셋째, 친밀한 가족적 감정을 갖게 하고, 가족영역에서 충족되었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넷째,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적 의식 즉 '우리 감정'을 갖게 한다는 특성을 추구하고 있다(류경희, 1999).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가족간의 공동체성이란 가족간의 상호교류의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영역을 통하여 깊은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구성원들간, 구성가족간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모색하며, 가족들간에 가족적 감정과 욕구충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족범위에서 더 한 층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류경희·김순옥, 2000).

오늘날과 같이 개별가족을 사회로 연결시켜 주는 2차 집단이 부재하고(장현섭, 1995), 그 결과 이웃 및 지역과의 공동체 약화를 가져와 가족간의 공동체적 기반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은 이 시기에 가족간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서 핵가족의 최대 과제인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족간의 공동체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자녀양육을 가족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미래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서 대중적인 수준에서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고, 상호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체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육아 방식이다. 기존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하나의 대안적인 보육형태 또는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이념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유아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졌으며(차현진, 1997; 조순영, 1998; 이부미, 1999), 공동육아의 조직과 구조 또는 구성원들의 참여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조합원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았거나(임우연, 1995),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공동육아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들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거나(한송이, 1997), 개별 조합원들

간의 결합관계나 이해조정 과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관찰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특성과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이창호, 1998).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가족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가족단위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자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 대안적인 가족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여가족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가족들에게 미래의 공동체적 가족생활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여가족들의 경험세계와 의미체계가 중요하므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생활경험속에서 그들의 주관적 관점과 의미 등을 찾아나가는 문화기술학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가족들간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가족이라는 장에서 공동체적 가족이라는 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은 가족내에서나 가족간에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Hartmann, 1981), 단일가족이라는 장에서 공동체적 가족이라는 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참여가족 내, 그리고 참여가족들간의 적응상의 문제와 이해관계의 갈등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며,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는 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가족간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대를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의식의 확산을 꾀하며, 자녀양육 외의 가족생활의 여러 부분에서도 가족간에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II.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선정 및 개관

현장 연구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98년 10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공동육아연구원을 방문하여 공동육아에 관한 자료를 구하였고,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이 위치한 장소와 참여가족수, 개원시기 등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설립역사, 참여가족의 적정규모와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한 현장연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96년 3월에 개원하여 당시 참여가족 27가족, 아동 수 31명이었던 <활기찬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99년 1월 14일 1차 방문하였다. <활기찬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중에서 4번째로 개원된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역사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초기 조합원들이 남아 있어서 관찰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전형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참여가족수도 너무 적거나 많지 않은 적정규모를 이루고 있어서 가족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살펴보고, 정보제공자를 선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조합원들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이 용이하리라 판단되었고, 원장과 교사들, 아이들도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이곳을 현장연구의 장소로 선정하였다. 사전에 협조 요청문을 작성하여 미리 배포하였고, 99년 1월 16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한 번 교사보조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장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활기찬 어린이집>의 설립 과정, 구성과 조직, 일상생활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활기찬 어린이집>은 1995년 2월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의 두 어머니가 우연히

만나 공동육아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고 준비해 보자고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해 6월 TV프로에 준비모임이 소개되고, 지역신문에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는 등의 노력으로 당시 조합원은 14가구, 자녀수 19명인 상태에서 공동출자로 터전을 전세 계약하였다. 그후 96년 1월과 2월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마침내 3월 2일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활기찬 어린이집>은 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어린이집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감독을 하고, 가입비·출자금·보육료라는 비용부담을 한다. 99년 8월 현장연구 당시 30가구가 조합가구이며, 조합가구 중 한 가구만 사별로 인한 편모 가구이다(30가구에 총 59명의 조합원). 조합원은 대부분 30대이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맞벌이가 많으며, 직업은 회사원, 교사, 전문직 순으로 많다. 주거형태는 대부분 전세이며, 이 터전에 2명 이상 자녀를 맡긴 가구는 7가구, 1명을 맡긴 가구는 23가구이다. 조합의 아동은 조합원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는데 만 2세부터 6세까지 있다. 아동 수는 99년 8월 현장연구 당시 총 39명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연령과 장애에 관계없는 통합교육이 원칙이나,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도글도글방(97년생), 도란도란방(96년생), 소근소근방(95년생), 깡충방(94년생), 도깨비방(93년생)으로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방이 구분된다. 장애아는 없으나, 언어지체 현상을 보이는 남아가 1명 있어서 부모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일주일에 한 번 특수교사에게 특별개인지도를 받게 하고 있다. 또 오른쪽 발이 안쪽으로 90° 정도 휜 내번쪽으로 걷는 데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남아가 1명 있다. 교사는 전일제 5명, 반일제 1명, 원장, 영양교사로 모두 8명이다.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선발되며 공동육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교사양성과정이나 원장연수를 마친 사람들이다. 교사경력 은 1명이 현재 5년차이고 나머지는 모두 2년 미만의

1)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활기찬 어린이집>(가명)으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 등장하는 조합원 및 교사, 아동의 이름은 정보제공자를 보호하고 사생활의 침해를 막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신입교사들이며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으로는 이사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부모대표로 결성된 이사회는 이사장, 교육이사, 홍보이사, 운영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과 교문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는 교사 선발, 보육시간 결정, 어린이집 전세금에 필요한 출자금과 보육료 산정, 운영규칙, 회계내역 공개, 일일 교사참여, 소식지 발간, 신규조합원 모집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월 2회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 후 조합원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에 조합원 및 교사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교육소위원회와 홍보소위원회가 있다. 교육소위원회는 교육이사를 중심으로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소위원회에서는 홍보이사를 중심으로 소속 조합원들이 소식지 편집 기획 및 제작, 이사회 총회보고서 작성·공지·보관, 조합내외 홍보기획 진행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월 1회 아이가 속해 있는 방별로 방모임이 있는데, 이 방모임은 조합운영과 교육에 관한 기본논의, 조합원 상호 친목도모와 이해, 조합원/교사 간의 인식공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대표와 이사, 정관의 개정, 출자금, 시설 및 보육료, 원장과 교사의 선출과 해임 등을 전체 조합원과 논의한다. 기본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긴 경우 430만원, 2자녀 이상 맡긴 경우 550만원으로 하며, 가입비는 40만원이다. 월 보육료는 12개월에서 18개월 아동의 경우 41만원, 19개월에서 26개월 아동의 경우 36만원, 27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의 경우 31만원, 37개월에서 60개월의 아동의 경우 28만원, 61개월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의 경우는 26만원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운영비는 전적으로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로 충당되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 보육시설에 비하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신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부

기준보다 훨씬 낮추었고, 교사 처우를 상대적으로 현실화했고, 아동을 위해 쓰는 직접비용(식비, 교재 비용 등)을 투명화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방침은 나들이와 바깥놀이를 통한 자연과 친밀해지기, 교사·아이·부모간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열린 인간관계 지향, 생활과 놀이의 통합, 연령별·성별 통합과 장애와 비 장애의 통합교육, 우리음식 맛보기, 전래놀이와 동요 즐겨 부르기를 통한 민족적 정서함양이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어린이집 하루의 흐름은 7시 30분 등원 시작, 9시 30분 오전 간식, 10시 30분 나들이, 12시 점심식사, 13시 30분 쉬는 시간(낮잠 등), 15시 자유놀이, 16시 오후간식, 16시 30분 오후 활동(특기활동, 영역별 활동 등), 18시 정리정돈, 19시 30분 퇴원 마무리를 한다. 프로그램과 시간표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보육시설과 달리 아이들은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논다. 함께 오전간식을 먹고 나서 나들이를 가는데, 나들이 장소는 주변의 공원, 놀이터, 산, 논, 시장, 어린이집 텃밭, 시민회관, 도서관 등으로 가깝게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철 또는 버스를 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먼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바깥 나들이는 바깥바람 쐬면서 자연을 접하고 지역사회를 접하고 사람들을 접하면서 관찰과 탐색으로 경험을 넓히고 오감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나들이에서 돌아와서는 점심을 먹는데, 이곳의 먹거리는 농촌(‘우리살림’과 ‘한살림’ 생활협동조합)과 유기농 직거래를 한 무공해 식품으로,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맞도록 정성스레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생일 날에는 경단과 수정과 등도 만들어 먹인다. 식사 후 또 자유놀이 시간이 된다. 자유롭게 놀다가 2시 정도부터는 낮잠을 자는데, 낮잠 자기 싫은 아이는 자유롭게 하던 놀이를 계속한다.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 교사들은 조합원의 노동들<sup>2)</sup>을 살펴

2) 가정과 어린이집을 연결해 주는 연락장이다.

보고, 또 조합원에게 아이의 생활에 관해 노트들을 써준다. 낮잠을 자고 나서는 오후 간식을 먹고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이들의 교육은 방별로 교사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준비해 실시하는데, 아이들은 다른 방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면 방과 연령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교육,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여 놀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융통성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2. 면접대상 선정

본 연구자는 <활기찬 어린이집>에서 '99년 1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8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장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하였다. 심층면접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조합원의 인적사항, 참여기간, 이곳 생활에의 몰입정도, 면접에의 협조 가능성 등을 파악하였다. 문화기술학<sup>3)</sup>의 정보제공자 선정기준<sup>4)</sup>을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가족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0가족을 선정하여 정보제공자로 아버지 2명, 어머니 8명으로 하였다.

정보제공자 및 그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수집방법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관심으로 만나 가족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아직까지 소수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며, 보통가족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조사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의미, 해석, 주관적 경험, 가족간의 상호작용, 역동, 내용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pradley의 문화기술학(Ethnography)적 심층면접과 실제 현장에서 참여관찰이 적합하다. 문화기술학적 참여관찰과

3) 본 논문에서는 Ethnography를 문화기술학(文化記述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 첫째, 정보제공자는 연구주제에 철저히 문화화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보제공자가 연구의 주제가 되는 문화에 철저히 익숙해져 있을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둘째, 정보제공자는 현재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상태(current involvement)에 있어야 한다. 셋째, 정보제공자는 면접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제공자는 가급적 비분석적(nonanalytic)일수록 좋다(Spradley, 1979). 이는 어떤 개념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자신의 분석적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보다는 개념이나 상황자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제공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1> 정보제공자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정보 제공자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남편/부인직업	등원 아동수(나이)	참여기간
김용범	38세	남	대졸	교사	교사	여아 3명	96. 3. 18~현재
박현주	32세	여	대졸	전업주부(어린이집교사)	변호사	여아 1명(6)	96. 3. 6~현재
문영미	36세	여	대졸	전업주부(회사원)	학생(회사원)	여아 2명(4, 7)	96. 3~현재
최숙자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어린이집 교사, 원장)	교사	남아 1명(7)	96. 3~현재
임소영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학원강사, 독서지도)	회사원	남아 2명(4, 7)	96. 3~현재
권미숙	32세	여	대학원졸	전업주부(시간강사, 잡지사 근무)	대학원생	남아 1명(5)	97. 6. 11~현재
최정환	38세	남	대졸	회사원	회사원	남아 2명(5, 7)	97. 12. 1~현재
박경미	34세	여	대졸	전업주부(회사원)	회사원	남아 1명(6)	98. 1~현재
홍은미	33세	여	대졸	전업주부(교사)	회사원	남아 2명(6, 7)	98. 2. 16~현재
정영숙	36세	여	대졸	전업주부	남편과 사별	남아 1명(5)	97. 8. 11~현재

\* 직업에서 ( )는 전의 취업경험이다.

심층면접의 조합은 의미와 설명이 연구자들이 미리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부터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정보제공자의 말과 구성으로부터 나오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삶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Strauss & Corbin, 1990; Detzner, 199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학적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정보제공자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Spradly(1979, 1980)의 발전식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관찰장면에서 내부자로 참여하는 것과 국외자로 머무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보통참여 관찰을 하였고, 조합의 정관, 회의자료, 소식지, 조합형성초기의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참여관찰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메모해 두거나 기억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돌아오면 즉시 현장일지를 작성해 나갔다. 2월 12일부터는 어느 정도 부모들의 얼굴을 익히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의 활동모습, 부모와 아이들의 놀이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촬영은 연구 보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찍은 사진을 부모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부모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에 원장, 교사, 부모들과 비공식적 면접을 하였다. 참여관찰 시 처음엔 광범위한 서술관찰<sup>5)</sup>을 하였으며, 친근감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는 점차 집중관찰<sup>6)</sup>과 선별관찰<sup>7)</sup>을 하였다. 또한 Spradley(1979)의 발전식 연구절차에 의거하여 <표 2>와 같이 기술적<sup>8)</sup>, 구조적<sup>9)</sup>, 대조적<sup>10)</sup> 질문을 해 나가는 심층면접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집이나 정보제공자의 집 등에서 정보제공자 10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층면접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터전을 중심으로 걸어서 20분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면접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자는 노트에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요약(응축된 노트)하면서 적어나갔다. 면접은 5차까지 계획하였는데, 더 이상 나올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면접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횟수를 줄이는 것을 원

하는 경우가 있어서 4차에서 종료하기도 하였다. 99년 1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현장일지(A4 용지 172매)와 10명의 면접 필사본(A4 용지 864매)을 읽어 내려가면서 각 의미 있는 단어, 구, 절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찾으면서 영역을 확인해 나갔고, 선행

- 5) 서술관찰 내용: 터전의 위치, 터전의 공간구조, 아이들 놀이도구와 기구, 터전의 구성원, 터전에 있는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물건들, 터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터전의 일상생활 흐름, 아이들이 어른을 대하는 행동,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행동, 교사의 행동, 나들이 장소, 아이/교사간의 상호작용, 원장과 영양교사의 활동, 교사회의 및 아이들 교육활동
  - 6) 집중관찰 내용: 등원·퇴원시의 부모와 아이들/ 부모와 교사/부모들간의 상호작용, 퇴원시의 부모들의 청소활동, 아마활동, 안전사고들, 아이들의 싸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 터전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들
  - 7) 선별관찰 내용: 임시총회 99년 2/27(토), 졸업식 99년 2/27(토), 정기총회 99년 7/24(토), 도란도란 방모임 99년 3/5(금), 짱총방 방모임 99년 3/10(수), 조합원 교육 - ① <공동육아-나, 우리의 체험과 전망> 99년 3/27(토) ② 신입조합원 교육 99년 6/1(화) ③ <MBTI를 통한 나, 너 알기> 99년 5/21(금), 야유회-장소 이포 리조트 99년 6/19-20일 (토, 일), 개원 3주년 기념 잔치 99년 4/25
- 참고)저녁 마실가기, 이웃과 휴일 함께 보내기 등과 같은 비공식적 모임은 참여관찰하기 어려워 심층면접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며, 주로 공식적 모임에 초점을 두어 선별 관찰하였음
- 8) 기술적 질문들 예: 여기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세요?, 조합원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 맺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조합원이 아닌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터전에서 조합원 가족들의 생활모습은 어떻습니까?
  - 9) 구조적 질문들 예: 터전이라는 장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조합원 가족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조합원 가족간의 모임에서 가족단위 참여의 모임과 개인단위 참여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조합원 가족과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터전생활에서 맡은 역할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까?, 단일 가족이라는 장에서 공동체적 가족이라는 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단일 가족 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 10) 대조적 질문들 예: 조합원 이웃과 조합원이 아닌 이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합원 가족간의 공식적 모임과 비공식적 모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족단위 참여의 모임과 개인 단위 참여의 모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육아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표 2〉 문화기술학적 면접과정

면 접 단 계	면 접 내 용
1차 면접 및 분석	기술적 질문(descriptive question)과 면접기록 분석
2차 면접 및 분석	기술적 질문(descriptive question) · 구조적 질문(structural question) 및 영역분석(domain analysis)
3차 면접 및 분석	구조적 질문(structural question) 및 분류분석(taxonomy analysis)하기
4차 면접 및 분석	구조적 질문(structural question) · 대조적 질문(contrast question) 및 분류분석(taxonomy analysis) ·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하기
5차 면접 및 분석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s) 발견하기

된 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나온 영역분석을 토대로 연구범위를 좁혀 다음 관찰 영역과 면접의 대체적인 질문 맥락, 내용을 결정해 나갔다. 현장일지와 필사본에서 의미 있는 단어, 구, 절들을 가위로 잘라 이를 카드에 붙여 정리하였는데, 총 카드 수는 613매였다. 연구자는 각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영역을 찾으려고 하면서 의미론적 관계에 근거하여 각 영역내의 포함용어들의 관계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류분석표를 작성하였고, 총 71개의 영역에 7가지의 의미론적 관계를 발견하였다. 영역의 분류들간에 관련된 대조점이 되는 속성을 찾으려고 하였고, 영역들의 대조의 차원의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주제를 확인해 나갔다.

논문이 완성된 후에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 정보제공자에게 읽어보게 하였고, 이로써 자료분석을 거쳐 이루어진 연구자의 해석이나 주장이 불일치 하는 증거나 부정할만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결과가 정보제공자의 지각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III.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과정에는 크게 투자와 화합, 관계형성, 갈등과 극복의 과정이 있다. 투자에서는 낯선 집단의 장에서의 경제적 투자와 시간투자를 통한 헌신, 화합에서는 서로 다

른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가족들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다양한 출발점 인정하기와 가족들간에 또 개인들간에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고, 공동관심사, 동일세대, 공동공간(터전), 사용 용어, 고유 문화라는 영역을 공유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지향하는 과정이 있다. 관계형성과정에서는 구조적 요인, 시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요인이 관계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가족간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족들간에 관계 맺기를 하며, 가족들간의 관계 형성의 결과로 역할 관계와 情의 관계가 형성된다. 갈등과 극복의 과정에서는 개별가족이 집단의 장에서 가졌던 초기 기대의 빛나감, 개인 대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1. 투자와 화합

##### 1) 투자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가족간에 얼마간의 출자금 을 내서 함께 터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가족간의 준비모임을 통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처음 시기뿐만 아니라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는 공동육아의 기본적 생존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아낌없는 경제적 투자는 터전을 '또 하나의 내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 참여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출자했다



는 것 자체가 가족간의 '강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경제적 투자 외에도 공동육아는 부모의 참여가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터전의 청소, 각종 대소사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 이사회, 조합원 교육, 방모임, 아마활동 등과 같은 공식적 역할과 모임에, 또 터전의 시설 보수, 텃밭 가꾸기, 가족간의 마실, 퇴원 후의 육아 품앗이 등과 같은 비공식적 역할과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 김용범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공짜는 없다'라는 보상차원에서의 시간투자를 생각한다. 즉 이곳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친밀한 관계의 이웃을 얻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데 터전에 대한 시간투자를 통해 가족들은 육아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도 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써 아이가 터전에서 하루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유로워진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 육아라는 집에서 벗어나므로써 일과 중에도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심리적인 시간'도 갖는다. 또한 임소영씨는 "터전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동체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시간 투자 정도에 따라서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난다"고 하였듯이 시간투자는 '공동체성의 잣대'이기도 하다. 한편 참여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터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적게 투자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간의 시간투자의 정도 차이를 놓고 잠재된 불평들이 있다. 정영숙씨는 "공동체라면 각 가족은 개별 가족의 손해와 이득을 따지지 않고 전체 집단을 위하는 마음에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각 가족의 상황에 따른 시간투자를 별 다른 불평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똑같은 시간투자를 요구하거나, 적게 투자하는 가족은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가족은 그 가족대로 힘들고 지쳐서 불평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하기도 한다.

## 2) 화합

### (1) 다양한 출발점에 대한 인정

공동육아를 하기로 결심하고 참여하는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며,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수용 정도도 제 각각 다르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일반 기존 보육시설에 비해 아이를 맡기기가 더 좋고, 조합의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하여 참여하는 가족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정환씨는 "출발이 다르다고 했을 때 공동육아가 지향하고 있는 큰 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동의를 해야 하며, 공동육아의 큰 틀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함께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긴 스펙트럼'을 연상할 정도로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수용정도는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참여 가족들의 구성과 의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참여 가족들간의 의식동질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발은 달라도 그 생각에 대한 차이를 줄인다거나 하나의 목표에 동의할 수 있게끔 끊임 없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출발은 달라도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제보자들은 참여 조합원들이 공동육아의 큰 틀에만 동의하거나, 일단 따라가 보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조합원간의 생각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그렇지 못할 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공동체성의 형성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이곳에 들어 오고자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해 나갈 사람들을 고르는 경향이 생겼다. 이곳에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즉, 의무적인 역할에만 참여하고 모임에의 참여나 기타 역할들에 있어서는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는 가족들, 공동육

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초기 면접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으며, 설령 조합에 들어 왔다가도 대개 나가게 된다고 한다. 공동육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함께 할 가족들을 뽑는다는 것은 자칫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로서 폐쇄성을 떨 우려도 있으나, 참여 가족들은 공동체라고 해서 누구나에게 다 열려져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인정을 하고 있다.

## (2) 평등한 관계 구조

터전에서는 가족과 가족간에 그리고 남녀간, 부모와 교사간에 평등한 관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터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가족이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자체적으로 1년간 조합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과 이사를 매해 돌아가면서 뽑아 어느 가족이나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조합의 운영 일을 해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합의 운영은 가족간에 동등하고 평등한 구조라는 것이며, 이런 구조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터전에서는 남녀에 따른 역할구분이 없다. 아빠들도 아마활동을 통해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되고, 총회를 하거나 조합원 교육이 있어서 터전에서 저녁식사를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할 때는 설거지를 아빠들이 한다거나, 퇴원 후의 터전 청소를 아빠들이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자신의 가족 안에서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행동할지라도 터전에서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 터전이라는 공간에서 남녀간에 구별지어지는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교사와 부모간에도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기존의 보육시설과는 달리 부모들도 당연히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여 터전에서의 교육에 반영되도록 개입할 수 있고, 교사들도 집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열려진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관계구조이다 보니 부모와 교사간에, 조합원간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신입조합원으로서 이곳의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

은 원정이 부모는 교사와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감하게 부모의 양육방식의 변화를 권고하자 당혹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합원간에도 공식적인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다른 조합원과 의견대립이 되어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문영미씨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안이나 대책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 공동체에 대한 회의마저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대개의 조합원들은 의견대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와 의견이 같은, 틀리든 여기는 함께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되었던 자리를 일단 떠나면 마음속에서 그냥 '접어두고 푼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간의 평등한 관계구조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처음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계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동등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인간존중의 사고방식, 그리고 모두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평등한 관계 구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들끼리 더 쉽게 화합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공유영역

이곳의 참여 가족들은 터전과 같이 공동공간이라는 물리적인 공유영역과 육아라는 공동의 관심사, 386세대라는 동일 세대, 사용 용어들, 반말문화와 별명 부르기와 같은 고유문화라는 관념적인 공유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

### ① 공동의 관심사

육아 문제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해결과제이며, 각 가족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가족적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강한 공동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공동의 관심사로 인하여 정영숙씨는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강한 끈'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고, 박현주씨는 "그냥 의식(동질성)을 짝 느낀다"고 표현하며, 권미숙씨는 "전체적으로 나와 지향하는 것이 비슷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 신뢰감과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공동육아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아이 키우기’와 같이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보니 조합원간에는 항상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아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활, 가족 이야기가 개방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간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웃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가족간에 연대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되며, 가족간에 연대하여 공동체적인 삶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 ② 동일세대

참여 가족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동일세대(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으로 일명 386세대)이다. 최정환씨는 참여가족들간에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서적 저항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절망감에서 이 절망감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대한 묘한 연대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일세대로서 386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김용범씨는 “혼자는 약하다. 어려우면 뭉쳐야 된다”라고 표현하였듯이, 386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잠재적 공동체적인 성향은 그들이 사회에 나가 부모가 되면서 느꼈던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족간에 연대하는 공동체적인 방식의 공동육아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육아문제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이들은 동일세대로서 갖는 연대감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 ③ 공동 공간 (터전)

제보자들은 터전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또 하나의 가정’, ‘문화형성공간’, ‘공동육아 이념의 실천의 장’, ‘치외법권 공간’, ‘나를 수련하는 공간’이라는 더 큰 세계, 즉 하나의 상징적인 세계로 바라보고 있다. 첫째, 터전은 또 하나의 가정이다. 최숙자씨는 터전은 아이들이 집보다 더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집이라는 공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가정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터전을 집과 유사한 공간이며 또 다른 ‘제 2의 가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나의 집과 터전에 대한 동일시감으로 발전하여 터전에 대한 애착과 소유의식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임소영씨는 “터전이 마치 내 집과 같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기 보다는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 둘째, 터전은 아이들간의 또 어른들간의 문화형성 공간이다. 아이들은 하루 거의 대부분을 터전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터전은 일차적인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영미씨가 “아이들에게 터전은 집과 달리 자유롭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공간이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꿈이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듯이, 터전은 기존 보육시설에서처럼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틀에 맞추지 않으며, 아이의 자유로운 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자신들의 호기심과 절제되지 않은 본성을 일단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또 임소영씨는 “이곳에서의 아이들간의 생활과 경험이 아이들간의 문화를 형성하게 하여 아이들끼리의 유행어, 유행놀이, 유행그림을 만들어 내며, 지적 호기심도 부모가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간에 서로 충족시킬 때 지적 호기심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해진다”고 하였는데, 터전에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서로 모방과 학습을 통해 그들만의 행동양식이라든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아이들간에 함께 놀고 싸우고 또 스스로 화해하는 자연스러운 경험나누기 속에서 풍부한 간접경험과 공감능력도 길러지게 된다고 한다. 한편, 터전은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 비해 부차적인 공간이지만, 이웃들간의 교류의 장소로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범씨는 터전을 ‘일종의 사랑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권미숙씨는 내가 객인 공간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밥도 해먹고, 모임도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터전이란 공간에서의 빈번한 이웃간의 관계맺음은 가족들간의 만남의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셋째, 터전은 공동육아 이념의 실천의 장이다. 제보자들은 터전을 ‘공동체의 기지’, 공동육아의 이념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공동육아 실천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첫째, 터전은 치외법권 공간이다. 터전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어른들은 아이들 중심의 이곳 문화를 따라야 한다. 제보자들에게 의하면 이곳에서는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어른들은 터전에 오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모두가 어린아이가 된다. 어른인 자신도 아이들과 똑같다는 단정을 하여 어른, 아이 구별이 거의 없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의 세상이며, 어른들도 아이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주다보면, 어른, 아이의 구별이 있는 외부세계와는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집이나, 터전 밖의 장소에서는 그 동안 외부세계에서 익숙해져 있던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지라도 조합원이 되고 나서, 터전이라는 공간으로 들어 올 때는 터전 밖의 장소에서 자신이 행했던 행동과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즉, 터전은 아이들간의 법칙과 문화가 존재하고 터전의 공동육아 이념이 실천되고 있는 공간으로써 외부세계에서 익숙해져 있던 자신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공간이 된다. 다섯째, 터전은 나를 수련하는 공간이다. 조합원들은 아마활동을 하는 날이 아니어도 내 집 드나들듯이 편안하게 터전을 방문한다. 이곳에 와서 아마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터전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봐주는 조합원도 많다. 자원봉사처럼 스스로 아낌없이 수고를 해주는 문영미씨는 "터전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게 해주는 곳"이라고 표현하였다. 터전이라는 공동공간을 더 큰 지역사회 안의 하나의 사회공간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바라볼 때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자신의 마음자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여 가족들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는 이 터전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바로 '나를 수련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사용 용어

터전에서는 터전, 아마<sup>11)</sup>, 나들이, 들살이, 물살이,

노뎃들, 마주이야기, 마실가기 등의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아마, 노뎃들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용어이고, 그 밖의 것들은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우리들만의 용어'를 만들어 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익히면서 차츰 공동육아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한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외부사람들에게 생소함과 거부감을 주어 또 하나의 폐쇄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곳 사람들의 결속력, 공동체성을 돌켜 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용어들 외에도 이곳의 아이들은 나들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곳곳을 알게 되는데, 곳곳에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이름을 지어 붙이기도 한다. 권미숙씨는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 산이라고 한다든가, 분수대가 똥똥보처럼 생겨서 똥똥이 분수대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어 붙인 이름이라 친근감이 있고 지역사회 곳곳에 재미있는 추억이 배어 있으며, 이러한 것이 아이들에게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애정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또한 최숙자씨에 의하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전통적인 우리의 것을 선호하고 아이 중심적인 공동육아의 교육방식에도 부합하고 있어서 이곳의 교육원칙을 표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한다.

#### ⑤ 고유 문화

공동육아에서의 고유문화는 어른과 아이간에 서로 반말을 하고 별명을 부르는 문화이다.

먼저 반말문화에 대해서 보면, 반말문화가 주는 긍정적 속성은 첫째, 아이들의 사회성에 맞게끔 문화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김용범씨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사회성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강요된 사회에서 암기하듯이 존댓말을 쓰도록 하지 않는 것이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성숙되고

11) 아마: 아빠, 엄마의 준말로 교사 월차를 위해 부모가 하는 일일교사를 말한다.

반말, 존댓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반말을 하면 아이들에게 존중받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래서 강요된 사회에서처럼 존댓말을 하도록 시키지만, 이곳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맞는 문화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반말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둘째,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른과 아이간에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이해와 타협의 과정이 생기게 된다.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어른이 아이에게 말한다든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아이가 어른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른과 아이간에 대화와 이해의 과정이 단절되어 버리기 쉽다. 이곳에서의 반말 사용은 반말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말이라는 형식을 채우는 하나의 내용 즉, 반말사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평등한 관계형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정영숙씨는 “반말이라는 형식을 우려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반말을 통해서 습득하는 건강한 태도나 마음이 외부사회에서 다치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한다. 셋째, 어른과 아이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준다. 임소영씨는 “반말 문화가 아이와 같은 눈 높이에서 이야기하게 만든다”고 하고, 권미숙씨는 “내 아이가 아니라도 다른 아이들이 나를 반말로 친근감 있게 대해 주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최숙자씨는 “존댓말을 하는 아이와는 대화가 더 단조로워짐을 느끼고 오히려 반말을 서로 사용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기 때문에 자극시켜 주는 말, 격려시켜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넷째, 사회에 대한 긍정적 비판의식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반말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어른, 아이간의 반말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비판을 하면서 반말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이곳의 부모들로부터 나왔다.

한편, 반말문화가 주는 부정적인 속성은 첫째, 외부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것이다. 최숙자씨는

이 “반말문화가 외부사회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어색하게 여겨질지 평소에 터전이라는 집단 내에서는 잘 알지 못하나 한동안 터전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 오면 반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 이곳 아이들이 반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질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 외부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이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 보지 못한 신입조합원들도 반말이라는 형식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전까지는 반말사용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반말사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아해 하기도 한다. 둘째, 터전과 터전 밖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말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터전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터전식구들과 터전이라는 장소에서의 하나의 약속된 문화이다. 아이들이 터전 밖으로 나갔을 때 터전에서의 반말문화를 외부 사람들에게 그대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솔직하고 아이답고 자연스러우면서 거기다 또 반말까지 거침없이 해대는 아이들을 볼 때 타자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버릇없이 제멋대로 자라는 아이들처럼 볼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한다.

반말문화 외에 이곳의 고유문화로는 별명 부르기가 있다. 별명 부르기가 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 별명을 부름으로써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마활동을 하는 동안에 별명으로 불리게 되며, 또 이곳에 있는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처음 들어올 때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아이들이 별명을 지어준다. 최숙자씨는 자기 이름 외에 ‘또 하나의 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같이 합의하여 별명이 지어지고 불리어지는 것을 상당히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권미숙씨는 별명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내 아이만의 엄마라는 것에서 벗어나 터전에서의 모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잡게 한다”고 한다. 둘째, 별명 부르기는 어른과 아이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별명부르기가

어떤 정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라고 한다. 셋째, 별명을 짓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상대의 특징을 잘 살려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아이들이 별명을 붙여주는 과정은 무척 창의적인 과정이 된다.

## 2. 관계 형성

참여 가족의 구성원들간의 관계 형성 요인과 터전에서의 역할수행과 모임에의 참여를 통한 관계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형성하게 되는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관계 형성의 요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참여 가족의 구성원들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하게 되는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조합원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구조적 요인으로 거리적 근접성, 같은 자녀연령, 시간적 요인으로는 시간적 여유, 조합에 들어 온 시기, 심리적 요인으로는 관심과 노력, 심리적 친밀감, 그리고 조합원 관계 외에 친구관계, 학교 선후배관계, 같은 직업인 관계 등의 또 다른 관계로 엮여지는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 (1) 구조적 요인

거리적 근접성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초기에는 매우 중요한 관계 형성 요인이 된다. 정영숙씨, 임소영씨, 문영미씨 등의 제보자들은 처음 공동육아에 참여하면서 먼 거리에 사는 조합원 이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조합원 이웃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든지, 서로 아이를 봐준다든지, 아이들을 함께 등·퇴원시키는 등 빈번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연대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주거지가 근접할수록 생활지역 안에서 교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빈번한 만남을 갖게

되어 조합원 가족간의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해준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로 생활하는 방식이 구분되므로 자녀의 연령이 같은 가족들은 방모임을 통해 모이는 기회가 잦아지고 아이의 비슷한 발달단계, 같은 선생님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통의 관심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게 된다. 김용범씨는 “자녀의 연령대가 다른 집들 사이에는 상호간에 육아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의 힘듦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 (2) 시간적 요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조합에 들어 온 시기는 관계 형성의 시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은미씨, 문영미씨, 정영숙씨 등과 같이 맞벌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던 제보자들은 터전에 신경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친해질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고, 다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편, 맞벌이 가족과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들간의 시간적 여유가 다르다 보니 터전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대도 틀리는 등 이들 가족간에는 서로 교류하기가 더욱 어렵다. 맞벌이 가족은 아이를 퇴원시키는 비슷한 저녁 시간대에 만나기 때문에 그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은 또 낮 시간에 그들끼리 모임을 갖게 된다. 서로 안 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의 문제로 상호 교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합에 들어온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다. 조합에 들어 온 시기에 따라 조합원을 구분한다면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공동육아 협동조합 개원하기 전까지 함께 참여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 처음 준비모임 멤버는 아니면서 터전이 만들어진 후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사람들인 중간조합원, 조합원이 된지 채 1년이 안된 사람들인 신입조합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육아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강한

동질감,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한다' 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구자적인 회생이 따르더라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기회, 기쁨, 보람' 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그리고 초창기에 터전을 만들어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간의 결속력이 크고, 터전에 대한 애착과 주인의식이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애착과 주인의식은 지역사회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중에 들어오는 조합원들을 공동육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공동체가 변했다"고 회의하면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 많은 상처도 받았으며, 구성 가족들의 계속적인 교체과정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든 조합원들은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서서히 자신들이 했던 역할들을 이전 시키고 관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 지금은 계속적인 구성원 교체과정에서 중간조합원이나 신입조합원이 조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신입조합원이 많은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자신들이 이방인같이 느껴진다고 한다. 중간조합원들 중에는 친밀한 초기 조합원 속, 즉 터전의 중심으로 잘 흡수되지 못한 경우 만든 사람들의 결속력으로부터 닫힌 구조를 느끼게 된다. 이사회나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당겨주지 않는다는 느낌에 소외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조합원들은 신입조합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위치를 느끼면서도 주체적으로 그들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려는 힘은 미약하다. 신입조합원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들로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자족적인 의미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곳에 대한 고민이 진정으로 우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 없이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다른 조합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들도 기존 조합원의 친밀한 벽을 뚫지 못할 때 거기서 또 하나의 폐쇄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신입조합원들끼리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함께 적응해 나갈 때 그들끼리의 결속력이 생기고, 기존의 구성원들간에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들어 온 가족들끼리 서로 더 의존하게 된다.

### (3) 심리적 요인

관심과 노력, 심리적 친밀감은 관계형성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 가족의 구성원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권미숙씨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가족간에 교류하려는 노력이 없이 상대가 먼저 베풀어주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친밀해지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남에게 아이를 맡아 달라는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적인 역할만 수행하려는 조합원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권미숙씨나 박현주씨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와 개인적으로 교류하기 어렵다 보니,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들이 많아져서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친밀한 집단의 층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공동체로서 하나로 어우러지기 어렵다고 한다. 한편, 터전에서 다른 가족과 친밀해지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자신의 그런 관심과 노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심리적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참여가족들에 대해 심리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족간에 교류하는데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의 모습을 남에게 개방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4) 사회적 관계요인

조합에 참여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참여가족들간의 사회적 관계망은 조합원간의 관계 형성에 하나의 매개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든지 대학 선후배, 같은 직업인, 같은 학교 동문과 같이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맺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의 끈' 이 있으면 그 집단에 섞여 들어가기 수월하다. 권미숙씨는 처음에 전혀 아는 사람 없이 스스로 관계를 터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또 자신이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라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족들은 그만큼 초기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낯선 집단에 적응하는데 친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쉽게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정적인 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들간의 사회적 관계가 참여 초기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가족들간의 관계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상의 관계형성 요인들을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방과 친밀해지기 쉽고, 이런 요인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대방과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된다. 즉 거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자녀의 연령이 같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합에 들어온 시기가 비슷하며, 집단과 참여 가족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이 있고 스스로 관계 맺으려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관계의 안정적인 끈이 있을수록 더욱더 쉽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2) 관계 형성 과정

가족간의 관계 형성 과정에는 개별 가족의 장에서 집단의 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가족간 모임에의 참여 과정이 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가족간의 모임이 이들 참여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가를 역할 수행과 모임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살펴보았다.

### (1)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조합원들은 이곳에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운영해 나가며, 아마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터전의 청소를 비롯한 각종의 터전 일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참여를 하게 된다. 역할 수행을 통하여 조합원들은 개인, 내 가족에서 벗어나 집단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사회적 소속감,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한편 역할 수행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전업주부에게 역할이 치우치면서 누군가 이 집단에서 대신 희생해야 한다는 점,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고통 등의 부정적인 속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먼저 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속성을 보면 첫째, 개인, 내 가족에서 벗어나 집단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정환씨는 "역할을 맡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라고 표현하면서 이사장이나 이사 역할을 하면서 전 조합원에 대해 우리 식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부의 조합원간 관계, 조합원과 교사간의 관계, 조합의 장래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권미숙씨는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해야 더 공동체적이 될까"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고, 임소영씨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터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수행하다 보면 터전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터전사정에 밝아지며 역할을 마친 후에도 터전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애착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 가족들은 터전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개인, 내 가족에서 벗어나 집단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된다. 최숙자씨는 낯선 집단에 들어와 처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소외감,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찾아나가기도 하였다 한다. 특히 박경미씨와 같은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외에 친구간의 소모임 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특별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공동육아처럼 조직적인 규모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일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자신이 집단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집단 속에서 자신의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잡혀 있다는 인식 등을 하게 되면서 집단에의 사회적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셋째, 주인의식이 생긴다. 임소영씨는 터전에서의 역할 수행은 낯선 집단에 처음 들어와서 곁들다가 비로소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즉 터전의 주인으로서 터전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터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갖으면서 터전에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한편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부정적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맞벌이 부부보다는 전업주부에게 역할이 치우치는 경향이어서 전업주부라는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 터전에서는 아바, 시장보기 등 낮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는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는 전업주부의 차지가 되기 쉽다. 권미숙씨나 임소영씨 같은 전업주부들은 그다지 거절할만한 이유도 없기에 터전의 일을 그냥 맡아 해주게 되는데, 특히 이사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더 이상 터전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지치게 된다고 한다. 정영숙씨는 바쁜 맞벌이 부부들에 비해 전업주부들이 터전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 인한 혜택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의 자녀나 다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전업주부들이 기여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의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일이 물리는 것에 대한 고단함과 힘겨움이 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박경미씨는 “사회적으로 육아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터전에서의 일들이 전업주부에게로 치우치는 것은 결국 맞벌이 부부의 육아고통을 전업주부에게 대신 지게 함으로써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을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부담 지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 실망감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전업주부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된다면 함께 한다는 공동체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둘째, 책임감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있다. 최정환씨는 터전에서의 역할 수행은 일단 “책임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사장이나 이사의 역할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역할수

행이 책임감에서 출발은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즐기려고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 (2) 가족간의 모임

가족간의 모임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개별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집단의 장으로 옮겨가는 초기과정에서는 낮은 문화에 처음 접하면서 충격·놀람, 신선함, 신기함 등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집단 안에서 가족간의 교류를 행하는데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동육아에 참여하기 전에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가족들은 적응 초기에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과 신경 쓰임, 번잡스러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참여 초기에 이웃과 함께 하기의 어려움을 느낀 가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차츰 가족간의 모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간다.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가족간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가족단위의 전면적 교류, 다양한 가족의 모습 인정하기, 가족단위의 문화형성, 나의 가족 재확인하기 등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간 모임은 가족단위의 전면적 교류이다. 이곳에서의 가족간의 모임은 어느 개별 가족구성원이 가족 밖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교류하는 부분적 교류가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포함되어 교류하는 전면적 교류이다. 체보자들에 의하면 “그냥 동네에서 사귀 이웃과는 가족단위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부인간에 또는 남편간에만 서로 이야기 나누는 부분적 교류가 많아서 가족단위의 만남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정환씨는 가족단위의 전면적 교류는 “선 대 선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면 대 면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 서로 상대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잘 아는 사이가 되므로 엄마들은 다른 가족의 아빠들과도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내게 되고, 아빠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엄마들과 편한 관계를 갖게 된다. 가족단위의 친밀한 전면적 교류는 바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가족들간을 연결해 주는 끈끈한 아교 역할을 해 준다.

둘째, 가족간의 모임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게 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는 가족 대 가족의 만남, 즉 집단 대 집단의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가족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족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제시되며, 다양한 가족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폭넓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최숙자씨는 "다른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사는 모습을 직접 보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집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많이 알게 된다"고 한다. 서로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간에는 초기에는 자신의 집을 내보여준다는 것에 긴장감을 갖기도 하지만 서로 왕래하면서 남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새로운 관계망' 안에 자리잡게 한다. 서로 교류하지 않는 가족들간에는 '들여다보기'와 '개방하기' 과정이 없으며, 그 만큼 그 가족의 이미지가 다가오지 않으나, '들여다보기'와 '개방하기'의 과정을 경험한 가족들은 상대 가족의 분위기, 이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을 임소영씨는 "가족간의 막이 타거두어지는 게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족간의 막이 거두어지면서 그 집의 분위기라든가 이미지를 통해 생기는 상대가족에 대한 가족상을 나름대로 갖게 되며, 그 가족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또한 다른 가족의 가족상을 들여다보고 나의 가족상을 개방하게 되면서 다른 가족의 모습에 비추어 나의 가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재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셋째, 가족간의 모임은 가족단위의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가족간의 공동체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에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서 많은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홍은미씨, 권미숙씨 등은 공동육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부부가 함께 모임을 갖는 기회가 적었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부부 중 한쪽만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동육아를 통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신의 친구를 만나 취미나 여가를 보내기보다는 부부,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부부단위, 가족단위의 문화

가 형성되어 이에 충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넷째, 가족간의 모임은 나의 가족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가족단위의 모임은 단위 핵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끼리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단위 핵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을 증대시켜 주기도 한다. 홍은미씨는 "다른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거나 공동여행이라도 갔다 오게 되면 가족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끼리도 더욱더 친밀해지는 느낌이 생긴다"고 한다. 가족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하게 호흡하는 공기처럼, 의식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친숙하게 여겨지고 또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Gubrium & Holstein, 1997). 가족구성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가족으로 맺어져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임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다. 나의 가족 밖의 더 큰 세상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나의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가족구성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에 가족단위의 이웃간 모임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족이 바로 '가족'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주며, 가족구성원간의 가족적 친밀감 등의 가족적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 준다. 다른 조합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친밀해질수록 개별 가족단위 내의 가족구성원들간에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이에 더 돈독한 관계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 3) 관계 형성 결과

조합원간의 관계형성 결과 나타나는 관계 유형은 크게 역할 관계와 情의 관계로 보여진다. 역할관계는 조합이라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공적 성격의 관계로, 집단 내에서의 역할수행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역할 관계는 집단의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계이므로 역할기대 안에 명시된 한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인간관

계이다. 권미숙씨의 경우처럼 이곳에서 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면서 공적인 일 관계로만 치중하여 인간 관계를 하었을 뿐 사적인 관계로까지 관계형성을 하지 못한 경우, 또 정영숙씨의 경우처럼 조합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조합이라는 전체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참여 조합원에게까지도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역할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역할관계의 경험은 사회적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소속감은 가지기 어렵다. 주로 역할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며,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단 내에서 이러한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의 공동체성은 견고하지 못하다. 조합원들은 주로 집단에의 참여 초기에 조합원들과의 역할관계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갖으면서 관계 맺게 되는데, 어떤 조합원과는 역할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게 되기도 하고, 어떤 조합원과는 역할관계에서 情의 관계로 전환하여 끈끈한 유대를 형성해 가기도 한다.

情의 관계는 조합원들이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깊은 가족적 체험을 하면서 가족의 심리적 경계가 확대되는 경험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이다. 이들 관계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애착, 사랑, 친밀감, 믿음, 편안함 등의 가족적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개인차원에서 형성된 情의 관계는 가족차원에서의 情의 관계, 더 나아가 집단에의 애착으로 확대된다. 情의 관계를 경험한 문영미씨는 “식사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생활을 다른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식구 중에 누군가가 부재한 것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하며, 최숙자씨는 “조합원 가족들이 서로 서로에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도시생활이 무척 적격하고 외로울 것 같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집단 내의 가족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함께 할 때 외롭지 않으며, 강한 신뢰감을 경험하게 되는 구성원들 및 가족들은 나와 내

가족의 시각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시각을 갖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임소영씨는 “이곳의 사람들과 같은 색깔을 지향하기 위해 나의 생각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차츰 나와 내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전체 조합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에게 주어지는 참여의 의무와 권리, 터전에서 안전사고, 아이들 식사문제, 나들이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 아이들간의 폭력성, 교사와 부모간의 대등한 교육적 대화 등등에 대해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여 불만을 갖게 되다가, 차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줄 아는 시각을 갖게 된다. 집단적 시각을 갖으면서 같은 색깔로 동화해 나가려는 조합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은 바로 情의 관계로 생긴 가족들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집단에의 애정으로 승화되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집단적 시각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집단에의 강한 동일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즉 내 가족과 집단의 동일시, 나의 가족원과 집단 사람들의 동일시, 내 집안 일과 조합 일의 동일시를 경험한다. 최숙자씨의 “터전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거기에 속했으면 같이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라는 말에서도 터전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기관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터전에 속해 있는 나와 내 가족도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나, 내 가족과 집단(조합)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집단(조합)과 ○○의 관계는 나, 내 가족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또 나의 가족원과 집단 사람들을 동일시하여 ‘터전의 아이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며,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아이들의 부모’ 라고 생각을 한다. 터전 밖에서 집단 사람들을 만나면 터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가족원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터전에서 이들에게 행동한 것처럼 그대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박현주씨는 내 집에서의 집안 일과 터전에서의 일을 동일시하고 있어서, 터전 일도 집안 일처럼 생각되어지고, 집안 일이기 때

문에 터전 일을 하다가 늦거나 해도 내 가족이 짜증내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情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집단적 시각과 집단에의 동일시를 통하여 나, 내 가족에서 벗어나 집단의 사람,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집단의 힘을 인식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진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별 가정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힘은 첫째, 이 집단이 육아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김용범씨는 육아의 고통을 “내가 책임을 지기엔 너무 벅차고 넘치고 자살할 것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집단이 함께 해 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힘을 얻었다고 한다. 둘째, 공동육아 방식의 교육을 개별 가정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권미숙씨나 홍은미씨는 공동육아에서 글자나 숫자 같은 인지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든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환경친화교육을 시키는 것 등의 교육 방침을 따르고 동의하는 데에는 부모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한다. 다른 가족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함께 공동육아 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방침을 지켜 나갈 때 혼자만이 갖고 있었던 피상적인 생각들이 소신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교육에 있어서 자기 주관을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 이들이 날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때 외부 사회를 거스를 수 있는 집단의 힘이 생기며, 개별 가정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터전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 역할을 집단의 분위기 자체로 강조할 수 있다. 터전에서의 아마활동, 아빠들의 모임 등을 통해 아버지들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직접·간접경험을 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다.

한편, 참여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집단의 힘을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전 조합원들이 거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조합에 들르게 되고, 총회나 조합원교육, 야유회 등의 공식적 행사를

하더라도 99%가 참석하여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어른들만 6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 중에서 결속도가 이곳의 조합만큼 따라가는 데가 없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집단의 결속된 힘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촉구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단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갖는다. 또한 집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 이념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 미래에는 대안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한다. 가족간의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새로운 삶의 질을 위한 힘을 갖는다. 가족간의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면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도 자연스럽게 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개인차원에서 형성된 情의 관계에서 경험한 가족적 체험은 가족들간의 情의 관계에서의 가족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하나의 큰 집단에의 ‘가족적 체험’으로 나아간다. 즉 나와 내 가족이 개별적인 다른 가족과 가족구성원들과 관계 맺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큰 집단인 조합 전체와의 확고한 관계 맺음으로 발전되어져 간다. 또한 情의 관계를 형성한 이들 가족들은 나, 내 가족이라는 장에서 하나의 집단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집단적 시각을 갖게 되고 집단에의 동일시를 통하여 집단에 동화하게 되며, 개별 가족 안에서의 집단의 힘과 지역사회에서의 집단의 힘을 느끼면서 집단에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하게 형성해 간다.

### 3. 갈등과 극복

참여 가족들간의 공동체성 형성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선택하면서 참여 초기에 갖고 있었던 기대들 즉 모든 육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이곳에서는 나의 가족의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등이 어긋나면서 집단에의 적응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 또한 조합원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교사들과 조합원들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개인차원에서의

적응상의 위기상황, 집단차원에서의 공동체상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며, 이것은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조합에 대한 懷疑로까지 확대되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가족에서 또 조합차원에서의 위기상황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간의 결속된 힘을 보여주게 되고, 공동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1) 초기 기대의 빛나감 및 극복

몇몇 가족들은 이곳에 오면 모든 육아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참여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아이들간의 폭력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이의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이곳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경험을 한다. '99년 1월에서 9월 동안에도 터전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었다.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아이들이 달아나기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 교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슬그머니 터전 밖으로 나가 다쳐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사고와 사건 속에서 부모들은 흠 마당에서 놀고, 매일 나들이를 가는 공동육아 방식에 대해서 환상만을 가질 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터전 안에서의 아이들간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핥고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기거나 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말투를 써서, 공동육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었던 제보자들은 실망감과 속상함을 경험하였다 한다.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육아 때문에 공동육아를 선택했고, 육심으로는 뭔가 여기에서 자란 아이는 좀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 지도력이 있지 않을까, 자기 표현력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기대 속에서 참여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역시 실망하게 된다. 이곳에서의 실망으로 어떤 조합원들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탈퇴하기도 하는데, 권미숙씨에 의하면 대개 그러한 경우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기존 보육시설의 안 좋은 점을 겪어 보지 않았고, 초기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조

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 공동육아가 낫다는 식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두고서 선택한 가족들이라고 한다. 또 이런 가족의 경우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기 보다 무언가 완벽히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공동육아의 모습에 쉽게 실망하고, 내 아이가 여기에서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으로 탈퇴라는 방법을 취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임소영씨를 비롯하여 이곳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여 기꺼이 동참하며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나 혼자, 내 가족만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다 한다. 초기 기대가 어긋나더라도 탈퇴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내는 가족들은 집단에서 경험한 실망스런 일들을 만회해 줄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내가 여기 오길 잘했지” 이런 생각으로 지내게 되기도 한다.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으면서도 며칠은 순 문제점만 보여서 완전한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다가도, 또 이곳 만한 데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대한 실망이 무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의 정신적 지주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조언해 준다. 그래서 임소영씨, 최정환씨를 비롯한 참여 가족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중요성을 두고 공동육아의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고,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 밝은 표정이 있고, 튼튼한 아이로 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기대수준을 조정해 나간다. 이곳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해 낸 조합원들은 공동육아를 선택하여 한 번도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환상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

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바로 공동육아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편, 모든 육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빛나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 외에도 한부모 가족인 정영숙씨 가족처럼 자신의 가족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빛나가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가족도 있다. 정영숙씨는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면서 아이에게 부족한 아빠의 역할, 빈자리를 보충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사회적으로 커나갈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사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어긋나면서 “내가 내 일을 가지고 내 삶에 자신 있지 않으면 여기도 위축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영숙씨는 이러한 소외감과 섭섭함을 기대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극복해 냈다. 즉 부재한 아빠의 역할을 보충 받고 싶다는 기대를 접고, 가족 조건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어느 정도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 가족의 육아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위안을 삼기로 한다. 그렇지만 자신과 같은 조합원이 많아진다면 조합의 공동체성에 심각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함께 하고 있다. 정영숙씨는 아빠가 없다는 조건을 극복하고 다른 가족처럼 친밀해지기는 어렵다는 것, 한부모 가족의 조건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모습을 띠기는 아직 조합의 역량이 안 된다는 것 등의 현실과 조합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소외감과 섭섭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 2)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및 극복

### (1) 개인 대 개인간의 갈등 및 극복

개인 대 개인간의 갈등은 주로 조합원간의 갈등이다. 조합원들간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보여졌다.

첫째 아이들간의 따돌림, 폭력 등과 같이 아이문제를 둘러싼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다. 박현주씨는

’98년에 인영(딸)이와 딸의 친구인 원주가 서로 많이 할퀴고 싸우는 과정에서 속상함을 경험하였고, 결국에는 원주네가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다. 여기가 공동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원주네 같은 방식으로 탈퇴를 하는 가족들은 공동육아를 떠난 후에 이곳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박현주씨는 그때의 일을 정말 내 자식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 없이 다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좀더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간의 문제는 조합원간의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일이 관여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워 공동의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함께 키우는 부모들의 의식이 성숙되어 아이들이 생활하다보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마음 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할퀴는 일이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간의 따돌림 문제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이들간의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예전처럼 극단적인 탈퇴로 해결하려는 대신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즉 아이들간의 문제를 조합원간의 비공식적, 공식적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자칫 조합원간의 심한 갈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조합원들이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터전에서 공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조합원간 갈등이 있다. 조합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한 가족 당 1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마, 청소 등의 공식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조합원으로서 총회, 방모임 같은 공식적인 집단의 행사에 잘 참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입조합원은 처음에 집단생활에 적응하면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없고, 터전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터전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의무감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집단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고 핑계를 대고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려는 신입조합원들을 볼 때 집단의 일선에서

행사준비를 해 놓는 기존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과 참여라는 공식적 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반드시 신입조합원과 기존 조합원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조합원 중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낳는다. 몇몇 조합원들은 그런 경우 불만이 있어도 말로 해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냥 삭히면서 묵인한다던가, 그 사람의 성격으로 그냥 인정해 주고 접는다던가, 또 적당한 무관심으로 대한다던가 한다. 하지만 역할과 참여를 둘러싼 조합원간의 불만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대개 벌금이라는 집단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 해결된다. 경제적 제재는 가족들이 더 의식적으로 역할 수행하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임소영씨를 비롯한 몇몇 가족들은 아무리 공동체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가족에게 대신 수고로움을 전가시킨다면 벌금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터전의 변화 모습을 지켜봐 온 최숙자씨는 내 가족이 할 일, 다른 가족이 할 일을 구분 지어 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 벌금을 내게 하는 것에서는 참여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면서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셋째, 터전에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조합원간 갈등이 있다. 공동육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동체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 내 아이, 내 가족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권미숙씨는 서로 육아 품앗이를 해 주면서도 'give and take' 식의 단순한 거래관계처럼 행동하고,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조합원의 모습에서 종종 실망감을 경험하였다. 단순한 거래관계에서 실망감을 경험하거나,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조합원과는 관계 맺지 않게 된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해질 수는 없고, 개인의 감정을 다 읽어달라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불화를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감

정의 상처를 덮어둔다. 이런 사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공동체에 대한 회의로까지 나아가기도 하나, 곧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체적 관계형성에서 만회된다. 또한 부모의 공동체적이지 못한 자녀양육방법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은 많은 실망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만을 부각시켜서 다른 아이들이 따르고 동조하게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흥은미씨를 비롯한 몇몇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방모임이나 교육소위 모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였지만, 결국은 개인의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공식적 모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그 극복방법에 있어서 공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처럼 집단차원에서의 제재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실상의 관계단절로 나타난다. 사실상의 관계단절이란 그 상대방과 접촉의 기회는 가지나, 더 이상 情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어렵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역할관계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 (2) 집단 대 집단간의 갈등 및 극복

'99년 1월부터 터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고,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수련원'의 어린이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었다. 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이 차츰 표출되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7월 6일 도글방의 원정이가 교사도 알지 못하는 틈에 터전 밖으로 나가 다쳐오으로써 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이 폭발하게 된다. 방모임에서는 원정이의 사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 교사들의 책임 부분 등을 운운하면서 7월 15~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들살이에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이 늘어나 한때 들살이가 취소되려 하였다. 터전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터전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증폭

되었고 그 결과 조합원 내부의 갈등, 교사에 대한 불신 등이 발생하였다. 이사회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사회와 교사들이 갖고 있던 안전을 비롯한 운영상의 미숙함과 조합원과 교사 사이에서 잠복되어 있었던 견해차이와 갈등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구조적인 위기상황이라 판단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일단 터전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고 원인 중 하나로서 교사의 실수가 나타난 점에서 담당교사와 지휘책임자인 원장선생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에서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때 원장과 교사역할을 했던 소만 엄마가 반대의견서를 작성하고, 조합원의 서명을 받게 되었다. 소만 엄마가 반대의견서를 내면서 터전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조합원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조합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교사들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살이를 갖다 온 후에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열어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기로 하였다. 총회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공동체 내에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 교사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징계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교사들뿐만 아니라 터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여론 형성의 중심세력에서 제외되었던 조합원들은 늦게 사태를 파악하게 된 데에 섭섭함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호소해 왔다. 교사와 조합원간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에도 서로 불신과 섭섭함,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전체적인 집단차원에서의 공동체성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총회에서의 계속적인 논의과정은 안전대책마련보다는 이사회와 교사회의 나름대로의 입장,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문제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조합원들은 교사회의와 이사회 모두를 질책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번 일을 이사회가 권한을 가지고 논의 검토한 후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토론을 통하여 '무엇보다 대책이 중요한 것'

이라는 조합원의 여론을 재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이사회와 교사회의의 연석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위주의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로써 계속되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원정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교사들과 조합원들간의 미묘한 갈등관계는 총회라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되면서, 개별조합원들과 교사들은 집단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공동체에서의 교사와 조합원간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들과 조합원들간의 집단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각축 과정은 고용과 피고용자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생겨나게 하였으며, 교사와 조합원이 모두 공동체의 동등한 주인으로서 다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터전 안에서의 잘못된 여론 비화를 막고 총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갈등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과정은 집단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숙련과정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였다.

#### IV. 결 론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간의 공동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참여가족들간에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는 핵심기제는 다음과 같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가족간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단 안에서 情의 관계로 엮어진 부분집단처럼 공동체 내의 소규모의 하위집단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들 하위집단간을 연결해 주는 즉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핵적인 사람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족간의 관계 형성의 결과 맺게 되는 조합원 개인간의 情의 관계는 가족간의 情의 관계, 더 나아가 집단내의 애착으로 확대되어진다. 각 개인은 어떤 사람과는 역할관계를, 어떤 사람과는 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집단 안에는 情의 관계로 엮어진 여러 하위집단들이 있으며, 이



하위집단들이 갖고 있는 전체 집단에 대한 애착은 집단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동체로서 끈끈한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게 한다. 그러나 情의 관계의 하위집단들 외에 낱낱이 떨어져 있는 역할관계의 조합원들 및 가족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조합의 공동체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情의 관계로 엮여있는 각각의 하위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의 수가 많아서, 전체 집단 속에 차지하고 있는 하위집단의 수가 적을수록 집단에의 공동체성은 더욱더 확고해 진다고 볼 수 있다. 터전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는 심지 굳은 사람들은 집단 안에 존재하고 있는 情의 관계의 하위집단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심지 굳은 사람들은 터전에서 '중심핵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사회이거나 처음에 터전을 만든 사람이 아닐지라도 중간조합원, 신입조합원 중에서도 '중심핵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이 터전의 중심에서 흔들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분열의 조짐이 있더라도 터전의 공동체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가족들은 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이상주의적인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공동생산, 공동분배,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이상주의적인 공동체 개념은 많은 거부감이 들며, 실제 이런 이상주의적인 공동체는 현재 도시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상주의적인 공동체 개념은 하나의 허상이고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더군다나 가족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가족들은 공동체라는 용어가 주는 고정관념에서 심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용어 대신의 다른 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참여가족들은 도시에서 생산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매개로 하나의 연대감을 갖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오래된 친구로 발전해 갈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고립감, 소외감, 불안감 등을 극복하게 해주

는 형태라면 다 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현실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결국 공동체 개념이란 정의하기 나름이며, 이곳의 참여 가족들은 집단 구성원의 조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체로 그 개념을 수정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의 한 모델 사례로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사례의 강점은 첫째, 공동체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합원들이 졸업해서 이곳을 떠나가고 또 새로운 가족이 이곳을 선택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멤버의 교체과정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동체 확산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해 준다는 강점이 있다. 즉 조합이라는 공동체 형식은 떠났어도 공동체 모델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가족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미래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주역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둘째, 육아라는 대부분의 가족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어서 어느 가족이나 함께 가족간에 공동체적인 연대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셋째, 가족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 모델이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공동체 모델보다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을 내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이면서 가족이 본래 갖고 있던 공동체성이 내 가족 외부로 확산되게 되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동체성이 발현되기 쉽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참여 가족간에 형성되는 情의 관계 경험은 비혈연의 핵가족들간에 '나'에서 '우리'로, '내 가족'에서 '우리 가족'으로의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다른 가족과 다른 가족구성원을 내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이는 가족 경계의 확대 경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존의 편협한 가족 개념과 내 가족중심의 생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강점이 있다.

본 사례의 약점이라면 첫째, 이곳의 참여가족들 중에는 분거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이라는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보이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배려의 요구가 조합의 역량 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약점이 있다.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집단 지향적 성향과 더불어 집단 안에서 개별적인 참여가족의 조건과 상황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장애아가 있는 가족이나,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분거 가족 등과 같이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각 가족이 처한 상황을 배려해주는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이곳의 참여가족들 대부분은 육아라는 내 가족의 필요와 내 아이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길러보자는 기본적인 이기성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선택하였다는 현실적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가족의 필요과 이기성이 충족되지 못할 때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형식은 협동조합이라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내용은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인간관계 갈등, 공동체 생활과 사적인 생활과의 갈등 등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교육이나 인간관계 기술 및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주로 공동육아 이념과, 자녀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으로 치중된 경향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넷째, 집단의 적정 규모를 이루지 못하고 집단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경우 구성원간, 구성가족간 일차적인 관계형성이 어려워져 집단 내 분파가 생기고 결국 공동체적인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넷째, 참여가족들이 사용하는 아마, 터전 등의 용어와 반말하기, 별명부르기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는 하나의 공동체성 형성기제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외부 사회의 가족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외부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 형성 기제가 집단의 독자성만을 고집하는 폐쇄적인 기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유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가족들 대부분 중상층의 고학력자들이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외부의 왜곡된 시각이 생길 수 있으며, 중상층 이하의 저학력자들인 경우 계층간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출자금과 보육료 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공동체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참여가족들간에 어떻게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는가하는 과정만을 분석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공동체성 형성과정이 단위 핵가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조합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이웃들과는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가족원의 특성, 지역의 특성, 참여 가족간의 관계특성, 조합의 독특한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족간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정해진 방식이나 형식은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활기찬 어린이집의 가족간의 공동체성은 다른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활기찬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구성원들이 바뀌고, 조합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의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기찬 어린이집의 모습으로 영구불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류경희(1999).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경희, 김순옥. 한국의 공동체 가족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93-221.
- 류경희, 김순옥.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 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5(2), 119-151.
- 이부미(1999).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호(1998).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우연(1995).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섭(1995).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431-473.
- 정병호(1996). 미래지향적 사회조직과 가족문화. 백완기, 신유조 공저. 문화와 국가 경쟁력. 서울: 박영사, 459-501.
- 조순영(1998).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생활사에 대한 질적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현진(1997). 공동육아 어린이집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의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도시가계조사.
- 한송이(1997). 새로운 보육형태인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공동육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etzner, Daniel F. (1992). Life histories: Conflict in southeast Asian refugee families. In Jane F. Gilgun, Kerry Daly & Gerald Handel(eds.).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Sage Publications.
- Gubrium, Jaber F., & Holstein, James A. (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최연실, 조은숙, 성미애 옮김. 서울: 하우.
- Hartmann, Heidi I.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The example of housework, signs. *Journal of Woman in Culture and Society*, 6(3). 홍찬숙 역(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까치, 160-188.
- Spradley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이희봉 역(1996). 문화 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